

1. (가) 시대에 처음 등장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전시개요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아외전시실

시대 개관

(가)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사유 재산 제도와 계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부여 송국리, 여주 혼암리 등이 있습니다.

주요 전시품

①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② 스펀저를 이용하여 사냥을 하였다.
 ③ 거꾸집을 사용하여 도구를 제작하였다.
 ④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⑤ 빗살무늬 토기를 이용하여 식량을 저장하였다.

정답: ③

* 청동기 시대의 생활모습

- 제시된 자료인 반달돌칼과 비파형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도구이다.,

- 청동기 시대는 비파형 동검, 민무늬 토기, 반달돌칼,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처음에 만주.요녕 지역에서 비파형(요녕식) 동검을 수입해 사용하다가, 후기에는(초기 철기) 기술이 발달하며 독자적으로 세형동검을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증거가 바로 거꾸집이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민무늬 토기는 지역에 따라 모양이 약간씩 다르다. 밑바닥이 편평한 원통 모양의 화분형과 밑바닥이 좁은 팽이형이 기본적인 모양이며, 빛깔은 적갈색이다.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농경과 목축은 청동기 시대에 더욱 발달하여,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홈자귀, 팽이 등의 간석기나,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청동기 시대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신분의 상하가 나타나는 계급 사회가 성립하였다. 부족을 통솔하는 족장(군장)은 농업 생산이 증대함에 따라 재산을 늘리는 한편, 청동제 무기를 이용하여 이웃 부족을 정복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였다. 고인돌과 돌널무덤은 이는 이러한 군장들의 세력을 보여준다.

남한 내의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는 부여 송국리(집터, 돌널무덤과 독무덤 유적, 비파형동검, 송국리식 민무늬 토기)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 여주 혼암리(탄화미 발견), 서천 화금리 유적(탄화미 창고 발견), 울산 검단리(환호형 촌락터) 등이 유명하다.

청동기인들의 주거 형태는 신석기 시대와 같은 움집이지만 집터의 형태는 대체로 직사각형이며, 움집은 점차 지상 가옥으로 바뀌어 갔다.

①, ⑤ 신석기 시대에는 주로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여 식량을 저장하고,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 뼈바늘로 옷을 지어 입었다.

②, ④ 편석기를 사용한 구석기 시대는 초기에는 만능도구인 찌개나 주먹도끼를 주로 쓰다가 후기에는 이음도구를 이용한 스펀저를 사용하였으며, 사냥이나 식물 채집을 위하여 이동생활에 편리한 동굴에 주로 거주하였다.

2.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한 때까지 기른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여자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 집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에 다시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다. -「삼국지」 동이전 -

(나)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읍락을 침범하면 벌로 노비나 소·말을 부과하였다. -「삼국지」 동이전 -

- ① (가) -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② (가) -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③ (나) -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다.
- ④ (나) -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의 존재하였다.
- ⑤ (가), (나) -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정답: ③

* 초기국가 (가)옥저와 (나)동예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각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옥저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이 달랐고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동예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① 고구려는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②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④ 삼한은 다른 국가들이 제정일치(군장과 제사장이 일치) 국가 있는데 비해 제정분리의 국가였다. 이는 신성 구역인 소도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⑤ 삼한 중 변한은 철을 많이 생산하여 낙랑 및 왜에 수출까지 하였다.

3.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사료로 보는 고조선의 변천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王)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하니, 조선의 후(侯)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하려 하였다. - 「삼국지」 동이전 -

(가)

위만이 망명하여 호복(胡服)을 하고 동쪽의 패수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하였다. …… 준왕은 그를 믿고 총애하여 …… 백 리의 땅을 봉해 서쪽 변경을 지키도록 하였다. - 「삼국지」 동이전 -

<보 기>

ㄱ. 연나라 장수 진개가 침략하였다.
 ㄴ. 한나라 무제가 군대를 보내 왕검성을 공격하였다.
 ㄷ. 부왕(沮王)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ㄹ. 조선상 역계경이 무리를 이끌고 진국(辰國)으로 남하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고조선의 역사

우리 민족 역사상 청동기 문화에 기초하여 족장 사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이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동국통감 등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기원전 2333).

기원전 4세기 위략(삼국지위지 동이전에 인용됨)에 의하면 조선후가 스스로 왕을 일컫고 군사를 동원하여 연을 공격하다가, 고조선의 대부인 예의 만류로 그만두었다는 기록을 통해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원전 283년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아 고조선의 서방 2천리를 상실하면서 영토를 축소당하여 고조선의 세력은 일시 약화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해 고조선의 수도가 요하에서 평양으로 이동하였으며, 연의 철기제작 기술이 도입되었다고 보고 있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고, 요서 지방을 경계로 하여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중국 진·한 교체기에 예맥족 계열의 유이민 집단이 이주해 왔는데 위만은 1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받아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세력을 통솔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점차 확대하여 나간 후, 위만은 수도인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

위만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철기의 사용은 농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였다.

이 무렵, 고조선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기반으로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우세한 무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임변, 진둔 등을 정복하며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였다. 또,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이 직접 중국의 한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기반으로 고조선은 중국의 한과 대립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의 무제는 수륙 양면으로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였다. 고조선은 1차의 접전(패수)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약 1 년에 걸쳐 한의 군대에 맞서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주화파인 조선상 역계경의 진국으로의 이탈)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4.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습니다.
- ② 귀족 합의체인 화백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 ③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22담로를 설치하였습니다.
- ④ 대가(大加)들이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습니다.
- ⑤ 위화부 등 13부를 두고 행정 업무를 분담하였습니다.

정답: ①

* 대가야에 대하여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대가야는 시조 이진 아시왕(伊珍阿豉王)으로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까지 16대 520년간 존속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가야연맹은 4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의 침입으로 큰 타격을 입고 세력이 약화되면서(백제도 위축됨) 신라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반면 5세기 이후에는 고령·합천 등 경상도 내륙 산간지방의 농업에 유리한 입지조건과 제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던 소국 반파국은 5세기 후반에 새로이 시조설화를 만들며 대가야를 표방하며 합천·거창·함양·산청·아영·하동·사천 등지를 포괄하는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국제사회에도 등장하였다.

479년에 가야왕 하지(荷知)의 이름으로 남제(南齊)에 사신을 보내 작호를 받았고, 481년에는 백제·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진행된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활동의 폭이 매우 제한되었다. 554년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크게 패하고, 오히려 562년 신라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대가야는 정치적으로 삼국보다 발전하지 못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가야금을 제작하고 음악을 정리하는 등 높은 문화수준을 보유했다. 또한 지산동 고분을 비롯하여 본관동·중화동·양전동·종암동·괘빈동 등 고령지역에 분포한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금동관, 판갑옷과 투구 등 많은 유물들은 가야연맹의 맹주인 대가야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⑤ 신라는 초기에는 귀족합의체인 화백 회의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였으며, 통일 이후에는 중앙 행정 기구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위화부를 비롯한 13부를 두어 다스렸다.

③ 백제 웅진 시기에 중흥을 도모한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④ 고구려는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5.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골품에 따라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 ② 진대법을 실시하여 빈민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
- ③ 세속 5계를 규범으로 삼는 화랑도를 운영하였다.
- ④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 ⑤ 경당을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글과 활쏘기를 가르쳤다.

정답: ④

* 백제의 사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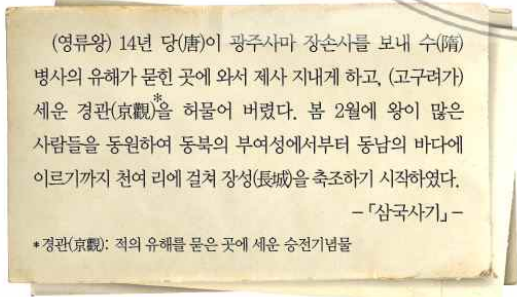
백제는 정사암 회의라는 귀족회의체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이나 여러 부의 힘을 통합하여 국가의 동원력을 강화하는 일 등을 결정하였다.

백제의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8성(진씨, 해씨, 목씨, 사씨, 연씨, 협씨, 국씨, 백씨)의 귀족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중국의 고전과 역사책을 즐겨 읽고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하였으며, 관청의 실무에도 밝았다. 투호와 바둑 및 장기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백제 지배층이 즐기던 오락이었다.

①, ③ 신라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어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고, 청소년 단체로 원광의 세속 5계를 규범으로 삼아 명산 대첩을 찾아다니며 수련을 한 화랑도가 있었다.

②, ⑤ 고구려는 봄에 곡식을 찌우고 가을에 갇게하는 제도인 진대법이 있어 빈민을 구제하였고(194년, 고국천왕), 교육기관으로는 소수림왕 때에 수도에 태학(372)을 세워 고관 귀족 자제들에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치고, 지방에는 경당을 세워(장수왕대) 평민 자제들에게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6.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554	612	645	660	663	675
(가)	(나)	(다)	(라)	(마)	
관산성 전투	살수 대첩	안시성 전투	황산벌 전투	백강 전투	매소성 전투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고구려의 천리장성 축조

오랜 분열과 혼란을 거듭해 온 중국이 수에 의해 통일되었다(589). 수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는 같은 처지에 놓인 유목 민족인 돌궐과 연합하여 수에 대항하였고, 수의 침입을 미리 막고 전략상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먼저 랴오허 강을 건너 전략적 요충지인 요서 지방을 선제공격하였다(598). 이에 수 문제가 침공해 왔으나(1차), 고구려는 이를 물리 쳤다.

612년에 수 양제는 직접 113만 대군을 동원 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다(2차). 요동성을 포 위, 공격하는 데 실패하고 바다를 건너 평양 성 부근까지 침략한 수군 또한 참패하자, 초 조해진 수 양제는 30만 명의 별동대를 투입 하여 평양성을 치게 하였다.

우중문 등이 거느린 별동대는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의 유도 작전에 말려들어 평양성 부 근까지 진군하였다가 크게 지치고 굶주려 결 국 후퇴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이 틈을 타 서, 적군이 살수를 건널 때 그 주력 부대를 공격하여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별동대 30만 명 중에서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겨우 2700 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 싸움이 유명한 살수 대첩이다(612).

그 뒤에도 고구려는 수의 공격을 몇 차례 더 물리쳐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였다. 수는 무 리한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와 내란으로 결국 망하고 말았다.

수의 뒤를 이은 당도 고구려를 침략할 기회 를 엿보았다. 고구려는 랴오허 강 주위의 국 경선에 천리장성을 쌓고 당의 공격에 대비하 였다(631~647). 이 때, 고구려에서는 연개소 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비롯한 여러 대신을 제거하였다(642).

당 태종은 대당강경론자인 연개소문의 정변 을 구실삼아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고구려는 국경의 여러 성이 함 락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안 시성을 중심으로 민·군이 협력하여 마침내 당군을 물리쳤다(645). 이후에도 고구려는 당의 빈번한 침략을 물리쳤다.

7. 밑줄 그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한성을 공격하여 개로왕을 전사시켰다.
- ②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 ③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하고 관등을 정비하였다.
- ④ 인안(仁安)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지린 성 동모산에서 건국하였다.

정답: ④

* 발해 무왕 대의 역사적 사실

7세기 말에 이르러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연호: 천통)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다(698).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719~737, 연호: 인안)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등주)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732). 이 때 신라는 당의 사주를 받아 김사란을 시켜 발해 남부 국경을 공격하였으나 추위로 실패하였다(733). 이에 발해는 돌궐, 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어 문왕(737~793)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발해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용천부)으로 옮긴 것은 이러한 지배 체제의 정비를 반영한 것이다.

이 무렵, 발해는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무왕), 대흥·보력(문왕)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발해는 9세기 전반의 선왕(818~830)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지방제도도 정비하였다(5경 15부 62주).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그러나 10세기 초에 이르러 부족을 통일한 거란이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오고, 발해 내부에서도 귀족들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어 발해의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애왕(906~926) 때에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926).

① 고구려 장수왕(413~491)은 백제 한성을 공격하여 개로왕을 죽이고 한강 전 유역을 장악하였다(475).

② 백제는 성왕(523~554) 때에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는 등 중흥을 도모하였으나 신라 진흥왕에 의해 관산성에서 전사하며 물거품이 되었다.

③ 신라 법흥왕(514~540)은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하고 관등제를 정비하여 중앙집권을 완성하였다.

8. 밑줄 그은 이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사직단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 ② 천명 사상을 통해 왕조 교체를 정당화하였다.
- ③ 시경, 서경, 역경 등을 주요 경전으로 삼았다.
- ④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불로장생을 추구하였다.
- ⑤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다.

정답: ⑤

* 신라 하대에 도입된 선종 불교

신라 말 도의가 당에서 귀국(821)하며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는 선종은, 경전의 이해를 통하여 점진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종과 달리, 경전(문자)에 의하지 않고(不立文字),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곧 불성(佛性)임을 알면 그것이 불교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견성오도(見性悟道)를 주장하며, 참선과 실천수행을 통하여 마음 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추구하며 널리 확산되었다.

선종의 확산은 경전 연구와 교단 조직을 중시하는 기존의 교종 중심 체제를 뒤엎는 혁신적인 것이었고, 당시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던 개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선종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방 호족의 이념적 지주가 되었으며, 선종 승려들은 지방 호족 출신이 많았다. 이들은 지방 호족과 결합하여 각 지방에 근거지를 마련하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9개의 선종 사원이 9산 선문이다.

선종은 지방을 근거로 성장하여 지방 문화 역량의 증대를 가져왔다. 선종 승려는 사회 변혁을 희망하던 6두품 지식인과 함께 새로운 고려 사회 건설에 사상적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문화적으로는 신라 말에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부도)과 탑비가 유행케 하였다.

①, ②, ③ 백성의 복을 위해 국토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을 제사하는 사직단과 민본사상에 입각해 역성혁명이 가능한 천명 사상, 그리고 시경·서경·역경 등 5경은 모두 유교와 관련된 것들이다.

④ 본래 무위자연(無爲自然)과 제물(齊物)을 추구하던 노장 사상이 기반이 된 도가 사상은, 신선 사상과 불로장생의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도교로 변질되며,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9.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담비 가죽과 인삼, 자기 등을 수출하였다.
- ② (가) - 벽란도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과 무역하였다.
- ③ (나) -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④ (나) - 당에 신라방을 형성하여 활발히 교역하였다.
- ⑤ (가), (나) - 양국 사이에 교통로를 두어 왕래하기도 하였다.

정답: ②

* 남북국 시대의 대외 교역: (가)발해, (나)통일신라

통일 후 신라는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이 번성하였고, 공무역뿐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하였다. 무역 확대로 산둥 반도와 양쯔 강 하류에 신라인의 거주지인 신라방과 신라촌, 신라인을 다스리는 신라소, 여관인 신라관, 절인 신라원이 만들어 졌다.

일본과도 처음에는 일본과 교류를 제한하여 무역이 성행하지 못하였으나, 8세기에 이르러 활발해져 쓰시마, 규슈에 신라 무역소를 설치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국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슬람 상인이 울산에까지 와서 무역하였다. 울주군 반구대 유적에 새겨 있는 낙타를 탄 행렬도나 페르시아 선박 그림은 신라에 내왕한 이슬람 상인들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8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 활동이 활발해져,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828)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발해는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하였다. 특히, 당과는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무역을 하였는데, 당은 산둥 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하고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발해의 수출품은 주로 담비 가죽, 인삼 등 토산물과 불상, 자기 등 수공업품이었다. 수입품은 귀족의 수요품인 비단, 책 등이었다.

일본과의 무역도 규모가 한 번에 수 백명이 오갈 정도로 활발하였다. 신라와는 초기 무왕(719~737) 대에 적대 관계였으나(당의 사주를 받아 733년 발해의 남쪽 국경 지대 공격), 문왕(737~793) 이후 관계를 회복하고 신라도라는 교통로를 이용해 신라와도 무역하였다. 신라와는 견직물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경제 교류가 있었다.

② 고려 시대에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송, 요 등 외국과 무역도 활발해졌다.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대외 무역의 발전과 함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때, 서역과의 교류도 활발하여 대식국인이라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에 들어와서 수은, 향료, 산호 등을 팔았다. 이들을 통하여 고려의 이름이 서방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0.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문화유산 카드

- 종목: 국보 제119호
- 소장: 국립 중앙 박물관
- 소개: 고구려 때 평양 동사(東寺)의 승려들이 만든 천불(千佛) 중 하나이다. 광배 뒷면에 연가(延嘉) 7년이라는 연대가 새겨져 있다. 얼굴은 가름하고 두꺼운 범의를 입었으며, 옷자락이 좌우로 펼쳐 있어 북위(北魏)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답: ③

*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 (국보 119호):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하촌리에서 발견되었다. 연가 7년(延嘉七年)이라는 고구려 관련 연호가 새겨져 있는데, 고구려와 관련된 명기가 있는 불상이 남한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문화재이다. 정수리 위에는 큼직한 육계가 있으며, 소라 모양의 보발(寶髮)이 있는데, 이는 삼국시대의 불상에서는 보기 드문 예로 중국 북조(북위)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① **이불병좌상:** 발해 동경성 출토. 흙을 구워 만든 두 분의 부처(석가불, 다보불)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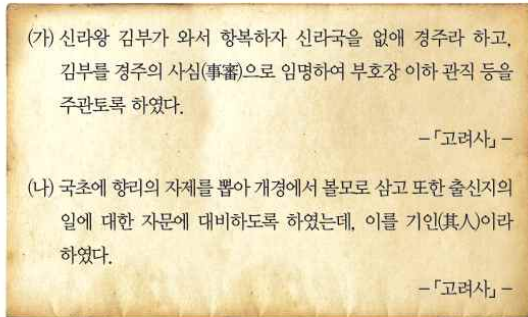
② **금동 정지원명 석가여래 삼존입상 (보물 196호):** 한 광배 안에 삼존불이 있는 삼국시대의 삼존불의 전형. 7세기 백제의 것으로 추정. 정지원이란 사람이 죽은 아내를 기리는 내용이 기명되어있다.

④ ?

⑤ **경주 구황리 금제여래 좌상 (국보 79호):** 1934년 경주 구황리 3층 석탑(국보 37호)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상. 8세기 초의 불상 양식

11. (가), (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도입되었다.
- ② (가) - 젊고 유능한 관리를 재교육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③ (나) - 5품 이상 문무 관리를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 ④ (나) - 좌수와 별감이라는 향임직을 두어 운영되었다.
- ⑤ (가), (나) -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정답: ⑤

*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

고려 태조(재위: 918~943) 왕건은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지방 출신으로서 그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을 중앙의 관리로 복무하게 하면서 그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의 직등을 맡게 하는 사심관 제도(최초의 사심관은 신라 경순왕 김부를 경주 사심으로 임명)와 향리의 자제를 상경 시위케 하여 출신지 일을 자문케 하는 제도인 기인 제도를 활용하였다

① 광종 때에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처음 실시하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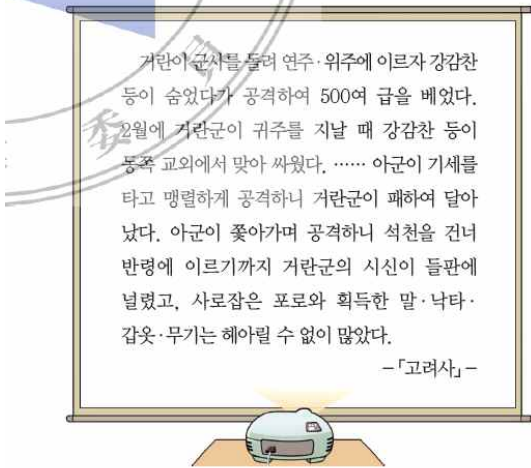
② 정조(1776~1800)는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③ 고려 문종은 5품 이상의 문무 관리들을 대상으로 공음 전시(1049)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음서제와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④ 조선 시대에 사족들이 향촌 자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인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로서 좌수, 별감 등의 향임이 회의를 주도하였다

12.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거란에 의해 발해가 멸망하였다.
- ②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이 조직되었다.
- ③ 서희의 활약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 ④ 거란을 배척하여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
- ⑤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정답: ⑤

* 귀주 대첩(1019) 이후의 역사적 사실

916년에 통일 국가를 세운 거란(요)은 926년 발해를 멸망시킨 후 초기에는 고려와 우호 관계를 위하여 태조 대에 낙타를 선물하였으나 태조는 동쪽 국가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한 적개심으로 낙타를 만부교 다리에 묶어 굶겨 죽여 거란을 자극하였다(942).

또한 정종(945~949) 때에는 거란에 포로가 되었다 재능을 인정받아 관리로 발탁된 최광윤이 사신편으로 거란의 침략성을 알려 왕에게 전달하여,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광군 30만이 조직하였다(947).

성종(981~997) 대에 이르러 거란은 송과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여,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 땅을 내놓고 송과 교류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993). 그러나 외교담판에 나선 서희가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994).

강조의 정변을 구실삼아 쳐들어온 현종 때의 2차 침입(1010) 때에는 개경이 함락되고 국왕이 나주까지 피난가기도 하였다. 국왕의 입조를 조건으로 거란군은 철병하였다.

이 때 양규는 흥화진(의주)에서 거란 20만 대군에 맞서 싸워 돌아가게 만들었고, 철병하는 거란군을 급습하여 귀주에서 7전 전승을 거두며 3만명이 넘는 백성을 구하다 장렬히 전사하였다.

3차 침입 때에는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을 강감찬이 귀주에서 맞서 싸워 살아 돌아간 거란의 군사가 겨우 수천에 이를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다(귀주 대첩, 1019).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계속 막아 내자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침략할 수 없었고, 송을 침략할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고려와 송, 거란 사이에는 세력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고려는 개경에 나성을 쌓아 도성 수비를 강화하였으며, 북쪽 국경 일대(압록강~도련포)에 천리장성을 쌓아 거란과 여진의 침략에 대비하였다(1033~1044).

13. 다음 건의에 따라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군사 조직을 9서당 10정으로 편성하였다.
- ② 별무반을 창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 ③ 야별초를 확대하여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 ④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 ⑤ 궁궐과 도성을 수비하기 위하여 5위를 운영하였다.

정답: ②

* 윤관의 별무반 설치 건의와 여진 정벌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 숙종 대에 취약한 기병을 보완하자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기(기병).신보(보병).항마(승병)군으로 구성된 별무반(1104)을 편성한 다음,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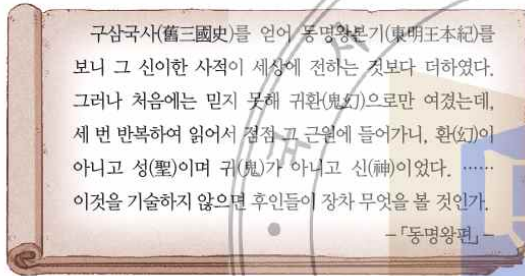
① 통일신라기의 중앙과 지방군인 9서당 10정은 신문왕(681~687) 때에 완비되었다.

③ 삼별초는 1219년(고종 6) 최충헌의 정권을 계승한 최우가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별초란 ‘용사들로 조직된 선발군’이라는 뜻이다. 그 뒤 야별초가 증가하자 이를 좌별초·우별초로 나누고, 몽골 병사와 싸우다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병사들로 신의군을 조직, 이를 좌·우별초와 합하여 삼별초의 조직을 만들었다.

④ 조선 전기의 중앙군은 궁궐과 서울을 수비하는 5위로 구성되고, 그 지휘 책임은 문반 관료가 맡았다. 중앙군은 정군을 중심으로 갑사나 특수병으로 구성되었다.

⑤ 임진왜란 초기에 어이없는 패전을 경험한 조정은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왜군을 물리치는 데 효과적인 편제와 군사 훈련 방식을 모색하여,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1593). 훈련도감의 군병은 포수(조총).사수(활).살수(창칼)의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서, 의무병이 아닌 직업 군인의 성격을 가진 군인이었다(장번급료병).

14.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 ②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 ③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④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 ⑤ 단군 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고려 후기 무신 정권기의 학자인 이규보는, 이익민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1183~1196) 유약하고 나태한 명종의 모습을 보며, 굳건한 기상의 고구려 시조에 대한 시를 지음으로써 왕에 대해 간접적인 비판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동명왕편(동국이상국집에 수록)에서 민간에서 귀신 이야기로 흘러내려온 고구려 동명왕의 건국설화를 재평가하여 김부식의 삼국사기(1145)에 나타난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을 비판하고 고대사의 소박한 원형을 그대로 표출하였다.

② 인종 때에는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1145)를 편찬하였다.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로서, 고려초에 씌여진 구삼국사(단군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져 온 역사 계승 의식으로 추정)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뚜렷하게 표방하였으나, 중기에 이르러 신라 계승 의식이 강화되었는데, 삼국사기에는 신라 계승 의식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답: ①

* 이규보의 동명왕편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이는 무신정변(1170)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은 후에 나타난 변화였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역사인 이규보의 동명왕편(1193)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③ 정조 때 서얼 출신 유득공(1748~?)은 '발해고'(1784)에서 발해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이 책에서 남의 신라와 북의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 부를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고려가 발해사를 찬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발해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던 여진·거란에 대해 영토적 권리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15.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동북면 병마사 간의대부 김보당이 동계(東界)에서 군사를 일으켜 전왕(前王)을 복위시키고자 하였다. (김보당은 장순석 등을 거제로 보내 전왕을 받들어 계림에 모시게 하였다.)

○ 서경 유수 조위총이 군사를 일으켜 동북 양계(兩界)의 여러 성들에 격문을 보내어 사람을 모았다. 겨울 10월 기미일에 중서시랑평장사 윤인침을 보내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조위총을 공격하게 하였다. - 「고려사」 -

1126	1135	1170	1232	1270	1351
(가)	(나)	(다)	(라)	(마)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 정변	강화 천도	개경 환도	공민왕 즉위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김보당의 난과 조위총의 난이 일어난 무신 정권 초기

무신정변(1170)이 발발하여 의종이 폐위되고 무신들에 의해 즉위한 명종은 실권없이 지내자, 문신 출신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은 정중부, 이의방 정권을 타도하고 폐위된 의종을 복위시키고자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1173).

서경 유수 조위총 역시 무신정변 이후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정중부·이의방을 타도하여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거병했으나 역시 실패하였다(1174~1176, 1179년 재봉기).

이 거병은 비록 조위총이 북계 여러 성 주민의 개경에 대한 불만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도한 것이었지만 그 중심 세력은 서북계 40여 성의 도령에 이끌린 서북 농민들이었다. 따라서 이 난은 서북 농민들의 무인 정권에 대한 항거의 성격이 강했다

16. (가) 지역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최충헌의 사노 만각 등이 난을 도모하였다.
- ② 고려 말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 피살되었다.
- ③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이 건설되었다.
- ④ 조선 후기 송상이 근거지로 삼아 전국적으로 활동하였다.
- ⑤ 일제 강점기에 조만식 등이 물산 장려 운동을 시작하였다.

정답: ⑤

* 개성의 역사

고려의 도읍지는 송악(개성)이다. 이 곳의 건축은 궁궐과 사원이 중심이었는데,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개성 만월대 터를 보면 당시 궁궐 건축을 짐작할 수 있다. 경사진 면에 축대를 높이 쌓고 건물을 계단식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건물이 층층으로 나타나 웅장하게 보였을 것이다.

개성 남대문은 조선 초기에 지어졌지만 고려 시대 건축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지니면서 조선 시대 건축으로 발전해 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개성의 복산인 송악산은 최충헌의 사노인 만각이 노비들을 규합한 곳으로 "...장군과 재상이 어찌 종자가 따로 있으랴?..." 부르짖으며 신분 해방 운동을 시도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1198).

개성 선죽교는 고려 말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신진 사대부 중 온건파를 이끌던 정몽주(동방 이학의 원조)는 급진파(혁명파)와 대립하다 이방원(태종)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곳으로 유명하다(1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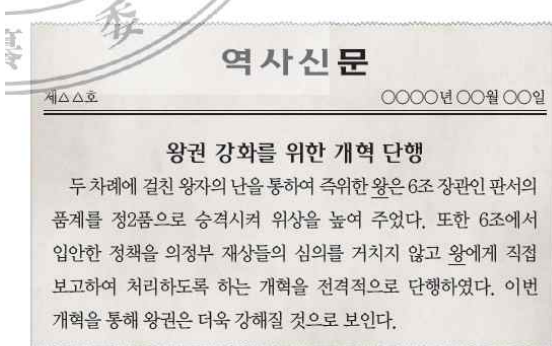
개성의 상인을 송상이라 하는데, 이들은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인삼을 재배·판매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대외 무역에도 종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1998.2~2003.2)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어, 2000년에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고, 그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이 건설(2000년 합의, 2004년 입주)되어 남북 간 경제 교류의 중심이 되고 있다.

⑤ 1920년대 들어 회사령이 폐지되며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자, 조만식 등에 의해 민족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1920년대 초부터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7.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동의보감을 편찬하여 보급하였다.
- ②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호패를 발급하였다.
- ③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④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서인 칠정산을 간행하였다.
- ⑤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정답: ②

* 조선 태종의 업적

조선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로써 정몽주를 제거하여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으며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1398, 1400)을 통하여 정도전 등 개국 공신 세력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태종(1400~1418)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태종은 6조에서 의정부로 개칭하고 곧바로 사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도인 6조 직계제를 채택하였으며, 언론 기관인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였다. 지방제도로는 8도 체제를 완성하였다(1413).

또, 양전 사업과 호구 파악에 노력을 기울여 오늘날의 주민 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16세 이상의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가지고 다녔던 신분 증명패인 호패를 착용케 하는 호패법을 실시하였고,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 위에 신문고를 달았으며, 억울한 노비를 조사하여 해방시켰다. 아울러 사병을 없애 왕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친위 군사를 늘렸다.

① 광해군(1608~1623)은 허준(1539~1615)을 시키어 동의보감(1610)을 펴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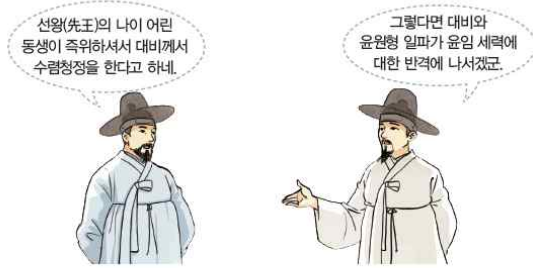
③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 때(1455)부터 편찬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1484년 완성, 1485년 반포).

④ 조선 초기 세종(1418~1450) 때에 만든 칠정산(1442)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⑤ 세조(1455~1468)는 기존의 관료들에 대한 수조권 지급 토지 제도인 과전법이 전·현직 관료에게 지급되고 수신전·효양전 명목으로 세습이 가능하여 신진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직전법(1466, 세조 12년)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18.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 ② 위훈 삭제 사건을 계기로 조광조 등이 제거되었다.
- ③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 ④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사림 세력이 피해를 입었다.
-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화를 당하였다.

정답: ①

* 을사사화(1545)

15세기 중반 이후, 중소 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리학에 투철한 지방 사족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을 사림이라 부른다.

김종직과 그 문인이 성종 때에 중앙에 진출하면서 사림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한 사림 세력은 주로 전랑과 3사의 연관직(언론과 문한 담당)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였다.

그러나 사림을 후원하던 성종 사후 연산군(무오.갑자)과 중종(기묘), 명종(을사) 대에 사림이 훈구 세력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받는 4차례의 큰 사화가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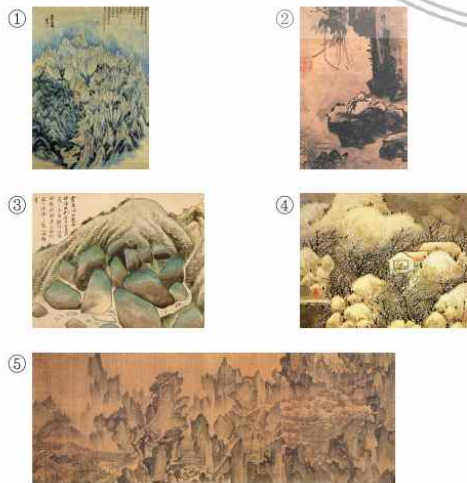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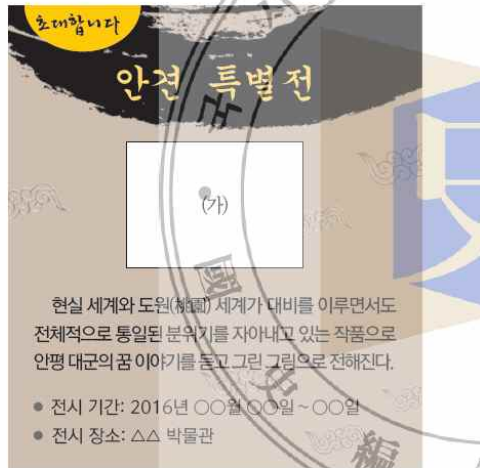
무오사화(1498):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초를 제자인 김일손이 실록에 작성한 것을 유자광, 이극돈의 훈구세력이 문제 삼아 김종직(부관참시), 김일손 등의 사림파를 처형한 사건. 그 결과 향사례, 향음주례를 주관하던 사림들의 기구가 혁파되었고, 김종직 문인으로 구성된 영남사림이 대부분이 몰락하였다.

갑자사화(1504): 연산군의 모친인 폐비 윤씨 사건을 둘러싸고 궁중파(임사홍, 신수근)가 성종의 유지를 주장해 폐비복위를 반대한 잔존 사림(윤필상, 김굉필, 정여창)과 훈구파 중 부중파(한명회, 정창손) 등을 처형한 사건

기묘사화(1519): 중종 때에 진출한 조광조의 급진개혁(훈구파 위훈삭제, 현량과 실시 등)과 관련하여, 남곤, 심정 등의 훈구 세력이 ‘주초위왕’ 모략으로 조광조, 김정 등의 사림이 처형된 사건. 사림에 의해 추진된 소학 실천운동이 향약과 함께 한 때 폐지되었다.

을사사화(1545): 명종 때에 왕위 계승을 놓고 외척인 소윤(윤원형)과 대윤(윤임)간의 권력 싸움과, 양편 모두에 사림이 가담하여 큰 피해를 받은 사건. 윤임과 정희등, 박광우 등의 사림이 처형당하였다. 이후 낙향한 사림은 학문교육에 몰두하여 서원과 성리학의 발달하였다.

19.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1점]



정답: ⑤

* 안견의 몽유도원도

화원 출신인 안견은 역대 화가들의 기법을 체득하여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 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몽유도원도(1447년)는 안평 대군이 꿈 속에서 본 도원(桃園)을 그리게 한 그림이다.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대각선적인 운동감을 활용하여 구현한 걸작이다. 현재 일본 덴리 대학에 소재하고 있다.

① 금강전도: 조선 후기 진경 산수화를 개척한 정선(1676~1759)의 작품.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이 작품에서 1만 2천봉을 집결시켜 거센 필법으로 중첩한 무수한 봉골을 죽죽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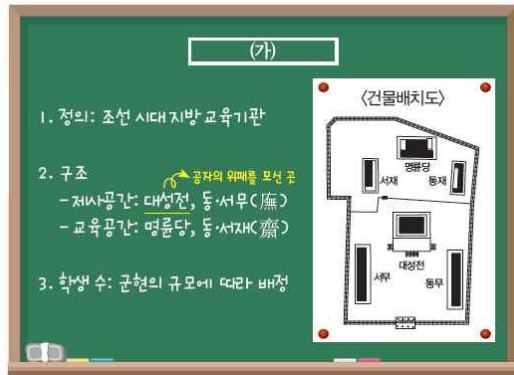
② 고사관수도: 조선 전기 문인 화가 강희안(1417~1464)의 작품. 그는 시적 정서가 흐르는 낭만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의 대표작인 '고사관수도'는 간결하고 과감한 필치로 인물의 내면세계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

③ 영통동구도: 조선 후기 문인화가 강세황(1713~1791)의 작품. 음영.원근법을 이용한 서양화 기법을 반영하여 사물을 실감 나게 표현하였다.

④ 매화초옥도: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 고람전기(1825~1854)가 은둔처사의 대명사인 임포의 고사를 주제로 하여 매화꽃 핀 산 속과 그곳에 자리한 집을 그린 그림.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 ②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하였다.
- ③ 흥선 대원군 집권기에 대부분 철폐되었다.
- ④ 입학 자격은 소과 합격자를 원칙으로 하였다.
- ⑤ 유학부 외에 의학, 서학 등의 기술학부가 있었다.

정답: ①

* 조선의 지방 중등 교육 기관 향교

조선은 고려의 교육 제도를 이어받아 서울에 국립 교육 기관인 성균관을 두었다. 이는 최고 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한양)의 4학(중학, 동학, 남학, 서학)과 지방의 향교가 있었다. 또, 사립 교육 기관으로 서원과 서당 등이 있었다. 이들은 계통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독립된 교육 기관이었다.

서당은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4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교육을 받았다. 교육받는 자의 연령은 대개 8, 9세부터 15, 16세 정도에 이르렀다. 천자문, 유합, 동몽선습, 격몽요결 등을 학습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서당 교육이 보편화 되며 서민 교육이 확대되어 서민문화가 발달케 되었다.

향교는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균관처럼 성현에 대한 제사(대성전: 공자 제향)와 유생의 교육(명륜당)을 하였으며,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은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소과 합격자)를 원칙으로 하여 예비 관료 양성의 역할을 하였다.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인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장려하여 전국 각처에 사림에 의해 많은 서원이 세워졌다.

그러나 서원은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누리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제사 비용의 명목 등으로 백성을 수탈하는 폐해가 있어, 영조 때(1741)의 정리를 거쳐, 흥선 대원군 집권 때에 사액서원 47개 서원 외에는 모두 철폐하였다(1871).

21. 밑줄 그은 '이 전쟁'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조총 부대가 나선 정벌에 동원되었다.
- ②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 운동이 추진되었다.
- ③ 4군 6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 ④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 등이 청에 인질로 끌려갔다.
- ⑤ 청과의 교류를 통해 서양의 과학 기술이 전래되었다.

정답: ③

* 병자호란 이후의 역사적 사실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정권은 명·청 교체기의 상황 속에서 중립외교 정책을 펼치던 광해군 때와는 달리 명을 가까이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친명배금)을 펴서 후금의 경계심을 사게 되었다.

마침 조선에서 이괄의 난이 일어나 사회가 혼란해지자, 후금의 군대가 이를 틈타 압록강을 건너 황해도 지역까지 쳐들어왔다(정묘호란, 1627). 그러나 당시에는 후금의 군사력이 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할 정도는 아니어서 일단 화의를 맺고 되돌아갔다.

그 후, 국력이 더욱 커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을 압박하여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다. 조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청의 태종은 10여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다시 쳐들어왔다(병자호란, 1536.12).

청군은 의주 부윤 임경업이 굳건히 지키는 백마산성을 우회하여 10여일 만에 서울에 이르렀다.

서울이 청군에 의해 점령되자, 인조는 본래 강화도로 대피하려 하였으나(비빈과 원손.왕자들은 강화도로 피신했으나 청군에 의해 잡히고 김상룡 순절) 여의치 않아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45일간 항전하였다. 주화파(최명길)와 주전파(김상헌) 간의 농성 끝에 결국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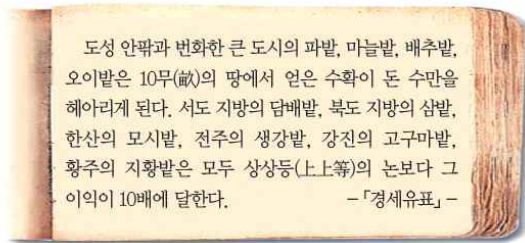
이 후 명과의 관계 청산 및 철저한 군신 관계 설정,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볼모, 삼학사(운집, 오달제, 홍익한)의 처형 등의 치욕적인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에 대하여 표면상 사대 관계를 맺고 사신(연행사)이 왕래 하며 서양 과학기술이 전래되고 교역을 활발하게 하였으나 내심으로는 청에 대한 적개심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북벌 정책을 추진하였다. 효종은 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을 높이 등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북벌을 준비하였다.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군대를 양성하던 중, 연해주 흑룡강 방면으로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을 격퇴키 위해 청은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여 북벌 훈련 중의 조선 군사(조총병)을 보내어 청나라 군사와 함께 2차례의 정벌(나선 정벌)에 나서 큰 전과를 올렸으나(1차: 1654-변급, 2차: 1658-신유), 청의 국력이 절정에 달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③ 세종(1418~1450) 때에 여진을 토벌에 나서 최윤덕을 시켜 중.상류 지역을 확보하여 북서 4군을 설치하고(1433), 김종서를 시켜 두만강 하류 일대까지 확보하여 동북 6진을 설치하여(1449),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의 국경선을 확보하였다.

22.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삼한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 ②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 ③ 모내기법의 확대로 이모작이 성행하였다.
- ④ 여러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되었다.
- ⑤ 국경 지대에서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이루어졌다.

정답: ①

* 상업적 농업이 유행한 조선 후기 경제상

출전인 경세유표(정약용 저)와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작물의 모습에서 조선 후기임을 유추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이앙법)이 널리 확대되었다. 농민들은 모내기법을 이용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하였다(광작).

또한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게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인삼,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또한 해외 원산지 작물인 고추, 고구마, 감자 등도 전래되어 구황 작물로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고, 유통 경제가 발달하자 지방 장시나 포구에서의 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보부상들은 장날이 순환하는 것에 따라 장사를 하면서 각 장시들을 연계하여 하나의 유통망을 형성하였다.

17세기 중엽부터는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며,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 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이었고, 수출하는 물품은 은, 종이, 무명, 인삼 등이었다. 의주의 만상은 대중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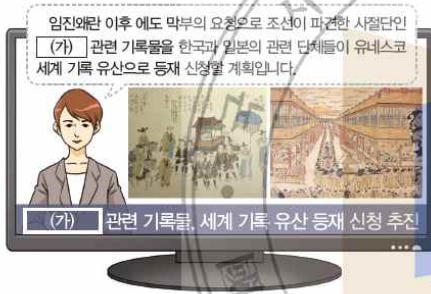
조선 후기에는 광산 개발도 활발해졌는데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작업 과정은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서 금속 화폐, 즉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동전인 상평통보(1678)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누구나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었다.

① 고려 시대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 때에는 철전인 건원중보(996)를 만들었으며, 숙종(1095~1105) 때에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거래는 여전히 곡식이나 삼베(저포)를 사용하였다.

2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이 참여하였다.
- ②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으로도 불리었다.
- ③ 조선의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 ④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하였다.
- ⑤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정답: ③

* 통신사

임진왜란 이후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에도 막부의 쇼군(將軍)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에 사절의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 회에 걸쳐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통신사 일행은 적을 때에는 300여 명, 많을 때에는 400~500 명이나 되었고, 일본에서는 국민으로 예우하였다. 일본은 이들을 통하여 조선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신사는 외교 사절로서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

①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1882.5)에 따라 조선 주재 미국 공사가 파견되자 정부는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였다(1883). 민영익, 홍영식이 이끄는 보빙사 일행은 서양 국가에 파견한 최초의 사절단으로 40여일의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박람회, 병원, 신문사, 육군사관학교 등을 시찰하였다.

② 조선은 명으로 매년 정기적(하정사·성절사·천추사·동지사), 부정기적(사은사·주청사·진하사·진주사 등)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④ 통상개화론자인 오경석은 1853~1859년 여러 차례에 걸쳐 연행사 통역관으로 청을 왕래하면서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의 서적을 가져와 서양 문물을 소개하였다.

⑤ 개항 이후 일본에 조사시찰단을 보냄과 동시에 청에는 영선사로 김윤식을 보냈다. 그는 38명의 학생과 기술자들을 이끌고 텐진 기기국에 가서 서양의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웠다(1881). 하지만 학생들의 근대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1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세워졌다(1883).

24. 밑줄 그은 '비석'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목극등(穆克登)이 샘이 갈라지는 곳에 자리 잡고 말하기를, "이곳이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며, 경계를 정하고 돌을 깎아 비석을 세웠다. 그 비문에는 '오라총관(烏喇總管) 목극등이 국경을 조사하기 위해 여기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이며 동쪽은 토문강이므로 분수령 위에도 돌에 새겨 표를 삼는다.'라고 쓰여져 있다. - 「만기요람」 -

- ① 간도 귀속 문제의 쟁점을 조사한다.
- ② 거문도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 ③ 삼국 간섭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본다.
- ④ 청·일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알아본다.
- 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정답: ①

*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문제

청은 중국 대륙을 차지(1644)한 후에도 그들의 본거지였던 만주 지방에 관심을 기울여 이 지역을 성역화하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일부가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숙종 때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1712). 이 정계비에서 양국 간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백두산 정계비는 그 후 조선 실학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어느 면으로는 토문에 대한 해석(청은 두만강으로, 조선은 송화강 지류로 보는) 차이에서 간도 영유권의 문제로 발전하여 현재까지도 학자들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세기 후반 이후로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만주(간도)였고,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간도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 대한 제국 정부는 간도에 이미 수십 만 명의 한민족이 거주하

는 것을 감안하여 북변(간)도관리(北邊島管理)를 설치하고 간도 관리자 이범윤을 파견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켰다(1902).

그러나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통감부는 교민의 통제를 위해 1907년 간도파출소를 설치했으나 1909년 청에서 안봉선 철도 부설권(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어 내는 대가로 청과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는 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

② 갑신정변(1884.12) 이후, 조선 정부는 청의 지나친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불안을 느낀 영국은 3년간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1885~1887).

③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조약(1895.4.17)을 체결하여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만주지역 진출을 노리는 러시아가 독일·프랑스를 끌어들여 삼국간섭(1895.4.23)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하며 일본의 세력은 위축되었다.

④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자 텐진 조약에 따라 양국 군대가 출동하였고, 전주화약에 따라 청은 철병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풍도 앞바다의 청 함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1894.7).

⑤ 임오군란(1882.6)을 진압한 청나라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을 체결하여 양화진을 통한 한성개잔권과 내지통상권을 얻어 도성의 시장과 개항장 밖 내륙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25. (가), (나)를 주장한 봉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가)

돌아가신 효종 대왕을 장자의 예로 대우하여 대왕대비의 복상(服喪)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

아닙니다. 효종 대왕은 장자가 아니므로 1년으로 해야 합니다.



< 보 기 >

ㄱ. (가) - 인현 왕후의 복위를 주장하였다.

ㄴ. (가) - 주로 이황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ㄷ. (나) -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ㄹ. (나) -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지지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예송 논쟁(기해예송): (가)남인, (나)서인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효종과 효종비의 국상(國喪)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기해예송-1659, 갑인예송-1674)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 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문제를 놓고 신권을 강조하는 서인(송시열, 송준길)은 주자가례에 따라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해예송 때에는 1년설(기년설)을 갑인예송 때에는 9개월(대공)설을 주장하였다.

반면 왕권을 강조하는 남인(허목, 허적, 윤휴, 윤선도)은 6경 고학(古學)에 기반을 두어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해예송 때에는 3년설을 1년설(갑인)을 각각 주장하여 서인과 대립하였다.

기해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하였지만, 갑인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하였다.

㉠ 숙종 때의 갑술환국(1694)으로 인현왕후 복위를 주장한 서인(노.소론)이 재집권하고, 남인이 지지하는 장희빈이 중전에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며, 남인이 쫓겨났다.

㉡ 선조 때에 경기의 서경덕 학파와 영남의 이황 학파(주리론, 도덕원리와 신분질서 중시, 선비의 수기치인 강조, 남인으로 발전), 조식 학파(의를 강조, 많은 의병장 산출, 북인으로 발전)가 동인을 형성하였다.

㉢ 서인은 숙종(1674~1720) 대에 이르러 환국정치 과정에서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노론(강경론)과 소론(온건론)으로 분화되었다.

㉣ 광해군 때의 집권 세력이며 그의 중립외교 정책을 지지하던 북인에 눌리던 서인들은 인조 반정(1623)을 주도하였으며,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고 2차례의 호란을 야기하였다.

26.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세 차례의 환국을 통해 왕권을 강화한 (가)은/는 양 난 이후의 국가 수취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동법을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 의례 복원의 일환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된 서울의 태조 영정을 새로 제작하였다. 이 의궤는 당시 전주 경기전의 태조 영정을 서울로 옮겨 모사(模寫)한 후 다시 돌려보낸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태조영정모사도감의궤

- ① 금위영을 설치하여 5군영 체제를 확립하였다.
- ②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문물 제도를 정비하였다.
- ③ 봉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세웠다.
- ④ 농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 ⑤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정답: ①

* 조선 후기 숙종의 업적

숙종(1674~1720)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3차례의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일당 전제화).

환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정치 권력은 점차 고위 관원에게 집중 되었으며, 언론 기관이나 재야 사족의 정치 참여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봉당 정치의 기반도 무너졌다.

경신환국(1680): 유악(기름먹인 장막) 사건을 빌미로(실제는 도체찰사 문제) 서인이 남인(허적, 윤휴 등)을 몰아내고 집권.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의 노론(강경론), 소론(온건론) 분화

기사환국(1689): 남인이 원자(장희빈 소생) 정함에서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 송시열 등 사사.

갑술환국(1694): 인현왕후(서인 옹호) 복위와 장희빈 강등 관련, 남인이 쫓기고 서인(노론과 소론) 재집권

그렇지만 강화된 왕권을 통하여 마지막 5군영인 금위영(궁궐방위)을 설치하고(1682),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1712), 대동법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으며(1708), 상평통보(1678)를 발행하는 등의 업적을 남기었다.

②, ⑤ 정조(1776~1800)는 법전으로 대전통편을 편찬하였으며, 신해통공(1791) 조치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자유스런 상업 발달을 도모하였다.

③, ④ 영조(1724~1776)는 자신의 탕평책을 널리 알리고 봉당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으며(1742), 농민의 균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였다(1750)

27. 밑줄 그은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 ㄱ. 신량역천으로 분류되었다.
- ㄴ. 통청 운동을 전개하였다.
- ㄷ.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 ㄹ.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서열에 대하여

일종의 서자 출신 첫 조선의 왕인 선조의 우호적인 말을 통해 서열임을 알 수 있다.

서열(양인 첩의 자제:서, 천인 첩의 자제:열)은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의 소생을 이르는 말이다. 서열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라고도 불리었다. 이들은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간혹 무관직에 등용되기도 하였으나 제사나 재산 상속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서열은 양반 사대부의 소생으로 인구비중은 높았으나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하여 서열금고에 의해 전문기술직 이외에는 벼슬길이 법제적으로 막혀있는 등 여러 분야의 사회 활동에서 각종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커져 갔다(賤者受母-限品敍用).

서열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자 서열들은 이를 이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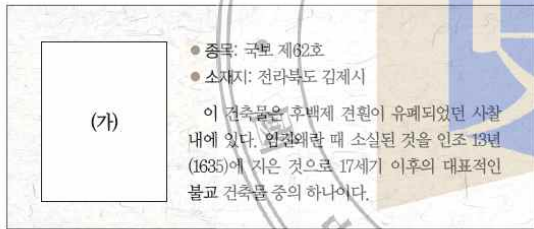
영·정조 때에 서열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여 수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상소를 올려 동반(문반)이나 홍문관 같은 청요직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서열통청운동). 그리하여 정조 때에는 정유서열허통절목(1777)을 발표를 계기로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열 출신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1851(철종 2년) 신해통공 조치로 사관(四館) 등용에 조치가 취하여져 서열 문과 합격생의 승문원 분관이 허용되어 완전한 청요직 허통이 이루어졌다(반면에 기술직 중인들의 통청 운동은 실패).

㉠ 고려, 조선에서는 양인 중에도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을 신량역천이라 하였다. 조선에서는 칠반천역이 있는데, 수군, 조례(관청의 잡역 담당), 나장(형사 업무 담당), 일수(지방 고을 잡역), 봉수군(봉수 업무), 역졸(역에 근무), 조졸(조운 업무) 등 힘든 일에 종사하는 일곱 부류이다.

㉡ 노비에 관련된 문제(문서, 소송)를 처리하는 국가 기관은 '장례원(掌隸院)'이다.

28.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부석사 무량수전

정답: ④

* 금산사 미륵전

-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후계 문제를 놓고 장남 신검을 배제하고 배다른 형제 금강(견훤의 4째 아들)을 세우려고 하자, 신검은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감금하였다. 이에 견훤은 탈출하여 고려로 귀순하였고, 후백제 정벌에 앞장섰다. 결국 일리천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은 신검의 후백제군을 크게 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고, 견훤도 곧 사망하였다(936).

- 17세기의 건축으로는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전(국보 62호, 1635), 전남 구례 화엄사 각향전(1702, 국보 67호), 충북 보은 법주사 팔상전(국보 55호, 1605년,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 석가모니의 생애를 8장면으로 묘사한 불화 소재)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 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불교 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 고려 전기에는 주로 주심포 양식(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져 있음)이 유행하였는데,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15호)은 1363년 중수된 기록이 있어 13세기 초 건립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건물로 알려져 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18호) 또한 1376년 중수된 오래된 건물이며, 배흘림 기둥, 삼중으로 맵시 있게 겹쳐진 포작, 이중 서까래로 인한 지붕의 가벼운 곡 선등이 이 건물의 특색이며, 전체적으로 장중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49호)은 1308년으로 건립 연대가 확실하여 한국 건축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균형잡힌 외관과 잘 짜여진 각 부분의 치밀한 배치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2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신문
제△△호 ○○○○년 ○○월 ○○일

특집: 강화 학파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곳은 강화 학파의 태두인 정제두의 묘이다. 그는 심즉리(心卽理), 치양지(致良知)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가)을/를 연구하였으며, 강화도에서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여 이광사 등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정제두의 묘(인천광역시 강화군)

- ① 지행합일을 중요시하였다.
- ② 정감록을 통해 왕조 교체를 예언하였다.
- ③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내세웠다.
- ④ 유교, 불교, 도교에 민간 신앙의 요소를 결합하였다.
- ⑤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여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정답: ①

* 양명학을 발전시킨 강화 학파

성즉리(性卽理)의 성리학과는 달리 양명학은 심즉리(心卽理)를 강조하고 타고난 참된 앎인 양지(良知)에 치중하라는 치양지설을 주장한다. 또한 선지후행(先知後行)의 성리학과는 달리 앎과 행하지행합일(知行合一)의 입장이다.

성리학의 절대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며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은 종종 때에 조선에 전래되었다. 학자들 사이에 관심을 끌어가던 양명학은 이황이 정통 주자학 사상과 어긋난다며 비판하면서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18세기 초에 정제두(1649~1736)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파로 발전시켰다(강화 학파). 그는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하였으며, 양반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이었기 때문에, 그의 학문은 집안의 후손과 인척(이광사, 이공익) 등을 중심으로 하여 계승되었다.

② 세도정치기(1800~1863)에는 말세의 도래, 왕조의 교체, 변란의 예고 등 근거없는 낭설이 횡행하여 민심을 혼란시켰다. 이씨 왕조의 운이 다하여 정씨 왕조가 도래한다는 정감록은 당시 널리 유행된 비기였다

③, ④ 유·불·도교의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었고, 주문과 부적 등 민간 신앙의 요소들이 결합이 된 동학은,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섬길 수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시천주(侍天主)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강조하였다.

⑤ 천주교는 조상에 대한 유교의 제사 의식을 거부하여,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부정과 국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조선 정부는 사교(邪敎)로 규정하였다.

30.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거중기를 제작하여 화성 축조에 활용하였다.
- ② 북한산의 진흥왕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증하였다.
- ③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하였다.
- ④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무능과 허례를 풍자하였다.
- ⑤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 의학을 주장하였다.

정답: ④

* 중상적 북학파 실학자 박지원(1737~1805)

조선 후기인 18세기 후반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가 나타났다.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용후생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한다.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허생전, 양반전, 호질 등의 소설 등을 통해 양반 문벌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농업에서도 과농소초 등을 저술하여 한전법(토지소유 상한제)을 주장하고,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①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1762~1836)은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펴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었는데, 이 거중기는 수원 화성을 쌓을 때(1794~1796)에 사용되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정조가 화성에 행차할 때 한강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배다리도 설계하였다.

② 김정희(1786~1856)는 금석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 등을 밝혔다.

③ 중상적 실학자인 박제가(1750~1805)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특히 우물물 비유를 통하여 적절한 소비를 강조하였다.

⑤ 19세기에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1894)을 저술하여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이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4가지로 구분하여 치료하는 체질 의학 이론으로, 오늘날까지도 한의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31. 밑줄 그은 ㉠, ㉡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조선 국왕이 프랑스 선교사들과 조선인 신도 다수를 처형하였다고 한다. …… 수일 내 우리 군대가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진군할 것이다.
- 프랑스 대리 공사 벨로네의 서신

㉡이번 덕산 모지에서 저지른 사건은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 따라서 우리나라 신화와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한마음으로 너희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할 뿐이다.
- 영종진 첨사 신희철의 서신

- ① 미국 로저스 제독이 초지진을 점령하였다.
- ② 흥선 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점립하였다.
- ③ 일본 윤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무력 시위를 하였다.
- ④ 양현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 ⑤ 조선이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고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였다.

정답: ④

* 병인양요(1866.9)

흥선 대원군은 처음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하였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하여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흥선 대원군은 유생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866년부터 6년 동안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병인박해). 이로 인해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 여 명의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군은 병인박해 때의 자국의 선교사 처형을 구실로 1866년 9월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였다(병인양요).

프랑스군은 군함 7척에 수병 600여 명을 승선시키고 조선을 침략하여 한강을 봉쇄하고, 그 중의 한 부대는 강화도 갑곶진에 상륙한 뒤 우수한 화력으로 강화읍을 점령하여 외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의궤와 금, 은 등을 약

탈해 갔다.

한성군이 지휘하는 군대는 서울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문수산성에서 방어하였고, 양현수가 거느린 군대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그 결과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 함대가 모두 퇴각하였다

병인양요 후 오페르트를 비롯한 서양인들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충남 덕산 소재)을 도굴하려다가 실패하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1868).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서양인들을 배척하는 기운이 더욱 거세어졌다.

병인양요에 앞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가까이 다가온 적이 있었다. 이 배에 탄 서양 사람들이 통상을 요구하자, 관리들은 외국과의 통상을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배에서 내려 민가를 약탈하고 관리를 잡아 가두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분노한 평양의 관민은 제너럴 셔먼호를 불살라버렸다(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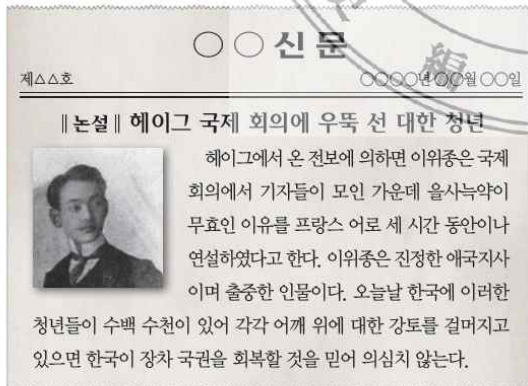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침입하여(신미양요, 1871.6) 초지진, 광성보를 점령하였으나, 어재연이 이끈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한때 광성보를 점령하였던 미군은 조선 군민의 강력한 저항에 버티지 못하고 물러갔다.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서양의 침략을 물리친 조선 정부는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정책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웠다(1871).

③ 메이지 유신(1868) 후 일본은 윤요호 사건을 일으키고(1875),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을 강제 개항시키었다(1876).

⑤ 조불수호통상조약(1886.5)을 통해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었다

32. 다음 기사에 보도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고종이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 ② 김옥균 등 개화 세력이 정변을 일으켰다.
- ③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 ④ 보안회가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 ⑤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답: ⑤

*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의 역사적 사실

일제는 러·일 전쟁(1904.2~1905.9) 승리로 한국의 독점적 지배에 대해 열강의 승인을 얻어낸 후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제 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을 강요하였다(1905). 이에 따라 일제는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1906).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대한 제국의 중요 법안과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내정을 전반적으로 지배하였다.

고종은 대한매일신보에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조약의 무효를 세계열강에 통고하였다. 애국지사들은 자결로써 항의하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 항쟁이 일어났다. 조약에 서명한 친일파 대신들을 처단하기 위한 5적 암살단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1907.7)가 열리자 특사(이준, 이상설, 이위종)를 파견하여 조약의 무효를 전세계에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특사는 대한 제국에게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조차 거부되었으며 열강의 외면을 받았고, 이준은 분사(憤死)하였다.

일제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문제 삼아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순종을 즉위시켰다(1907.7).

① 일제는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를 선제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러·일 전쟁, 1904.2). 앞서 대한 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제는 이를 무시하였다.

② 임오군란(1882) 이후, 청나라는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과 경제 침략을 강화하였다. 이에 반발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적 개화 세력(개화당)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하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3일만에 실패하였다(1884).

③ 김홍집 내각은 동학농민의 불만과 개혁 요구를 반영하고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1차 갑오개혁, 1894.7~1894.12).

④ 애국계몽운동단체 보안회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반대 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

⑤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으로 인한 정미의병에서 의병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으나, 총대장 이인영의 부친상 낙향으로 인한 조직력 와해로 실패하고 말았다(1908).

33. 밑줄 그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 ②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하였다.
- ③ 우리말 큰사전을 간행하였다.
- ④ 가가날을 제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 ⑤ 주자경, 지석영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정답: ⑤

* 국문 연구소

갑오개혁 이후 공문서가 국·한문 혼용으로 제도화되고, 학교 교육에서 국·한문체 교과서가 사용되면서 언문 일치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졌다. 유길준의 서유견문도 국·한문 혼용체 보급에 기여하였다. 1907년에는 학부 안에 국문 연구소가 만들어져 주시경, 지석영 등의 주도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 하였다

3·1 운동 이후 임경재, 장지영 등의 주도로 조선어연구회가 창립(1921)되면서 국어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한글 연구와 더불어 강습회를 열어 한글 보급에 노력하였다. 또, 한글 기념일인 '가가날'을 제정하여 우리말 쓰기를 권장하였고, '한글'이라는 기관지를 간행하여 한글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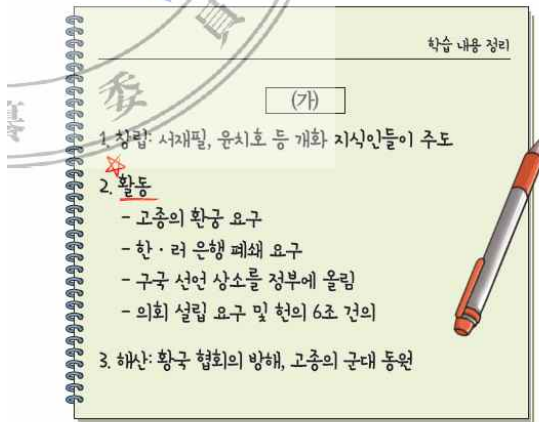
1931년에 조선어연구회가 조선어학회로 확대 개편되어 한글 강습 교재를 만들어 문맹 퇴치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더욱 활발한 한글 보급 활동이 전개되었다.

조선어학회의 가장 큰 성과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의 제정이었다(1933). 이를 바탕으로 조선어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 하였지만, 일제의 방해로 중단되고 해방 이후인 1957년에 간행되었다.

- ① 1876년 개항 이후 개화 정책에 따라 박문국에서는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1883)를 발간하였다

34.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 ② 만민 공동회를 열어 민권 신장을 추구하였다.
- ③ 대성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④ 민립 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추진하였다.
- ⑤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하였다.

정답: ②

* 독립협회

아관 파천(1896.2)으로 국가의 자주성은 손상되고, 열강의 이권침탈이 심해지자, 갑신정변의 주역 중 하나였던 서재필은 중추원 고문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1896.4), 독립협회(1896.7)를 설립하였으며,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열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워(1896~1897) 자주독립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러시아의 간섭과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독립 협회는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여 관철시키고(1897.2), 자주 국권 확립을 촉구하는 구국 선언 상소문(1898.2)을 올리고,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1차: 1898.3)를 열어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군사 고문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고, 부산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였으며 한·러 은행을 폐쇄하였다.

독립협회는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국권·민권 사상을 고취시켜, 광범한 사회 계층의 지지를 받는 단체로 발전하였다(자강개혁). 또, 독립협회는 자주 국권(이권 수호), 자유 민권(신체의 자유, 의회 설립과 국민 참정권 추진) 등을 달성하려는 정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1898.10)를 결의하고 고종은 건의문을 받아들여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관제를 반포하였다(1898.11). 이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의회가 설립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활동은 의회의 설립과 서구식 입헌 군주제 실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보수 세력과 대립하였다(공화제 모함). 독립협회는 보수 세력이 동원한 황국협회의 방해를 받았고, 고종이 동원한 군대에 의해 결국 3년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1898.12).

① 만세보(1906~1907)는 손병희, 오세창 등 천도교에서 발행한 국한문 혼용체 신문으로 민중 계몽과 일진회의 반민족 행위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

③ 비밀결사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1907~1911)는 대성학교(안창호)와 오산학교(이승훈)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④ 한국인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을 세우는 민립대학설립운동이 1922년 민립대학기성회를 통해 시작되었으나, 모금 저조와 일제의 방해(경성제대 설립)로 실패하였다.

⑤ 1907년 국민의 모금으로 나라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국채보상기성회와 각 민족연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 및 해외로까지 확산되었으나,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35. (가), (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에 자리 잡고 있어서 형세가 반드시 다툼을 불러올 것이다. …… 따라서 러시아가 땅을 공략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 「조선책략」 -

(나)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 먼 나라와의 외교에 기대어 가까운 나라를 배척하는 잘못된 조치를 취했다가 헛소문이 먼저 퍼져 (러시아가) 이것을 이유로 틈을 만들어 전쟁의 단서를 찾는다면 장차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 영남 만민소 -

- ① (가) - 일본의 개항 요구에 반대하였다.
- ② (가) -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③ (나) -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반대하였다.
- ④ (나) - 청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의 교섭을 건의하였다.
- ⑤ (가), (나) - 조선의 독자적인 영세 중립국 선언을 제시하였다.

정답: ②

* 조선책략과 미국과의 수교

강화도 조약(1876.1) 이후 청은 일본의 독점적인 조선 침투를 견제하고 국제사회에 청국의 위신을 높이고자 미국과의 수교를 권고하였다. 이 권고안을 집약한 책이 1880년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 도입된 황준헌의 <조선책략>이다.

이 <조선책략>은 ‘친중’, ‘결일’, ‘연미’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책략>은 조선 내에 큰 영향을 미쳐 조선의 대외정책이 개국정책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또한 위정척사 세력은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들은 ‘만민소’를 올려 ‘조선책략(러시아를 막기 위한 미.일과의 연대)’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였다(1881.2).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상소 운동이 전개되었다. 강원도 유생 홍재학은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왕까지 규탄하였다가 처형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의 알선에 신뢰를 갖고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1882.5).

① 강화도 조약(1876) 때에 최익현은 왜양일 체론에 입각하여 지부복궐(도끼를 메고 궐에 앞드림)의 5불가 척화 상소를 올렸다.

③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통해 부산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시켰다(1898).

④ 청의 조선 외교 고문 독일인 밀렌도르프와 러시아 공사 웨베르는 갑신정변(1884.12) 이후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러시아와의 교섭을 건의해 조.러 밀약설이 나돌았다.

⑤ 거문도 사건(1885) 직전 열강들의 대립으로 한반도가 국제 분쟁에 휩싸일 조짐이 보이자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한반도 중립화를 조선에 건의하였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유길준도 조선이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이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6.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수행 평가 보고서〉

대한 제국의 광무 개혁

1. 개혁 방향: 구본신참

2. 내용

구분	개혁 내용
황제권의 강화	(가)
군사 제도의 개혁	(나)
재정의 확충과 토지 소유권 조사	(다)
상공업의 진흥	(라)

3. 의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 지향

— < 보 기 > —

ㄱ. (가) - 대한민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ㄴ. (나) -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ㄷ. (다) - 토지를 측량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ㄹ. (라) - 대동 상회, 장통 회사 등의 상회사를 설립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광무개혁(1897~1907)

아관 파천(1896.2) 이후 열강의 침탈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며, 고종을 황제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고종은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왔다(1897.2).

환궁 후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 고친 후 환구단을 쌓아 황제 즉위식을 하고 국호를 대한 제국이라 선포하였다(1897.10). 대한 제국은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건국된 국가로, 고종은 국내외에 대한 제국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1899년에는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제가 군대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전제 군주임을

을 강조하였다.

대한 제국은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 아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대한 제국은 국가의 자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와 재정 확충, 상공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고 황제 호위 부대를 증강하였으며, 장교 양성을 위해 무관 학교를 설립하였다.

대한 제국은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아문(1901)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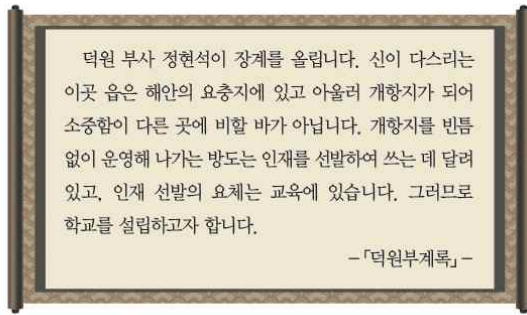
이와 함께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여 섬유, 운수, 광업, 철도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근대적 과학 기술을 일으키기 위해 의학교, 실업학교, 외국어 학교 등을 세우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정책은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부가 황실 재정으로만 집중)과 열강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러일 전쟁으로 1904년 사실상 중단).

㉠ 개항(1876) 후 민씨 정권은 1881년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고, 기존의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으로 개편하였다.

㉡ 1882년 청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청·일 등 외국 상인들이 침투해 오자, 개항장의 객주를 비롯해 자본 축적에 성공한 일부 상인들은 외국 자본과 경쟁하기 위해 동업자를 모아 상회사를 세우기 시작하여 1883년부터 대동상회, 장통상회, 창신상회 등이 설립되었다.

37.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최초로 설립된 여성 교육 기관이다.
- ②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범학교이다.
- ③ 관민이 합심하여 만든 근대식 학교이다.
- ④ 교육 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설립되었다.
- ⑤ 헬버트, 질모어 등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였다.

정답: ③

*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원산학사(1883)

근대 학교는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면서 민족 정신을 키워,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민족 운동의 바탕이 되었다. 개화 운동이 진행되면서 정부에서 영어 강습 기관(동문학, 1883)을 세우고, 함경도 덕원에서는 관민이 합동하여 원산학사(1883)를 세우고 신지식과 외국어를 가르쳤는데, 이는 우리 나라 근대 교육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후, 정부에서는 육영공원(1886)을 세우고 미국인 교사 세 사람(헬버트, 질모어, 번커)을 초빙하여 주로 양반 자제들에게 신지식과 외국어를 가르쳤다. 한편, 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도 정부의 협조를 얻어 배재학당(1885, 아펜젤러), 이화학당(1886, 스크랜튼), 정신여학교, 경신학교(1885, 언더우드), 배화학당 등을 세워 신학문과 서양 문화 및 영어 등을 가르쳤다.

②, ④ 1895년 2월 고종은 국민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여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국가 중흥과 국가 보존에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조치의 정신에 따라 동년, 교사 양성을 위한 4월의 '한성 사범학교 관제', 5월의 '외국어 학교 관제', 7월의 초등교육을 위한 '소학교령', 등 근대적인 학교설립을 뒷받침해 줄 각종 관제와 규칙이 제정되고 유학생을 선발하여 일본에 파견하였다.

38.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독립운동가, (가)

연보

- 1868 ● 출생
- 1907 ● 산포대를 조직하여 의병 활동 전개
- 1920 ● 김좌진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격파
- 1921 ● 러시아 자유시의 고려 혁명 군관 학교에서 독립군 양성
- 1937 ●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 1943 ● 카자흐스탄에서 별세

카자흐스탄에서 공연되었던 그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 장면 ▶



- ①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 ② 황포 군관 학교에 입학하여 군사 훈련을 받았다.
- ③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였다.
- ④ 의열단의 활동 강령인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 ⑤ 대한 독립군을 지휘하여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정답: ⑤

*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

홍범도(1868~1943): 구한말 평민 포수 출신의 불세출의 독립군 장군. 정미의병 때에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두만강을 도하하여 국내로 진공하려는 이범윤, 안중근의 연추 의병부대(1908.7~9)와 호응하여 삼수, 갑산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3.1 운동 이후에도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국내진공 작전을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일본 군대, 경찰,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하던 중, 1920년 6월, 두만강 북쪽 삼둔자에서 박승길이 이끄는 신민단과 교전 후 추격해오는 일본군 대대를 맞아 봉오동에서 일본군 다수를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150여명 사살).

봉오동 전투(1920.6)에서 대패한 일본군은 대규모 부대를 파병하여 만주의 독립군을 뿌리 뽑기 위해 훈춘 사건을 일으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만주의 독립군을 압박해 왔다. 이에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과 함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은 청산리에서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 간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1200여명 사살, 청산리 대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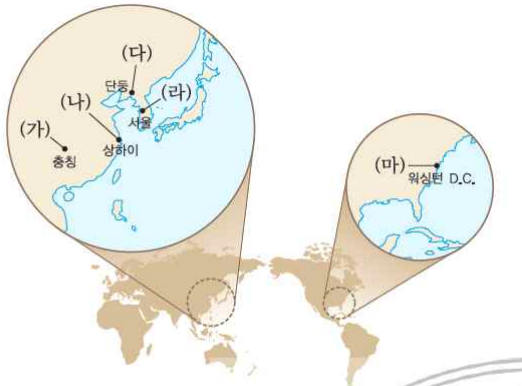
그러나 간도참변(1920. 10~12) 이후 소련의 지원을 믿고 극동 자유시로 들어가 참변(1921. 6.)을 겪은 후 다시 입국치 못하고,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이끌려온 후 극장 야간수위,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3년 76세로 사망하였다.

① 김좌진(1889~1930)은 대한광복회(박상진 조직), 중광단(서일 조직)의 주요 인물로 활동하였고 북로군정서를 이끌어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었다.

②, ③, ④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삼아 일제 요인 암살, 기관 파괴 등의 노선의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은, 이러한 개인 의거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1925년 몸소 중국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하여 군사훈련을 받은 후 조선혁명간부학교(1932)를 세워 훈련시키고, 정당 조직(후일 1935년 7월 민족혁명당 결성)과 군사 조직(조선 의용대 결성) 형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10).

39. (가)~(마) 지역에서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지역]

- ① (가) - 이륜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외의 연락을 취하였다.
- ② (나) - 국민 대표 회의를 열어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 ③ (다) -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 ④ (라) - 임시 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 ⑤ (마) - 의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였다.

정답: ②

*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권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여 입법기관인 임시 의정원, 사법기관인 법원, 행정기관인 국무원의 헌정 체제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임시정부가 재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애국 공채(독립공채)를 발행하고, 국민 의연금을 걷어들여 군자금을 마련하고 이륜 양행(단둥)과 백산 상회(부산)를 거쳐 국내외를 연계하는 조직망인 연통제와 교통국 등을 통하여 상해로 전달되었다.

상해 임시정부는 파리 강화회의(1919)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였고, 미국 워싱턴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 상해 임시정부는 애국공채를 발행하고,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배포하였으며,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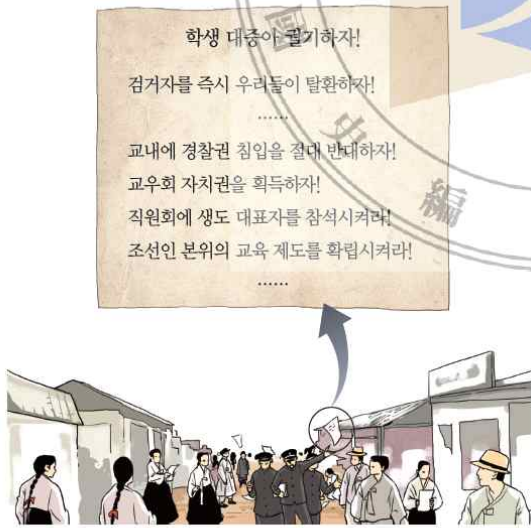
① 아일랜드 사람 조지 쇼가 세운 단둥에 설립한 무역 선박회사 이륜양행(1919.5)은 비밀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교통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② 초기 상해 임시정부는 의욕적으로 활동했지만 교통국과 연통제 조직이 일제에 의해 와해되어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외교 활동에 대한 무장 투쟁론자들의 비판이 거세졌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간의 갈등도 드러났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자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국민대표 회의(1923)를 소집하여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진로 문제를 놓고 개조파(안창호)와 창조파(신채호)가 대립하여 결렬되고 말았다.

③ 1941년 11월 충칭 임시정부는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강령을 제정.발표하였다.

⑤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상해에서 1931년 10월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 투쟁을 전개하여 1932년 이봉창, 윤봉길의 과거를 이루어 냈으나, 일제의 상해 침공을 야기하여 긴 기간(1932~1940) 이동을 해야했고, 1940년 9월 충칭에 정착하여 종전까지 소재하였다.

40. 다음 격문을 발표한 항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났다.
- ②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 ③ 형평사를 중심으로 진주에서 시작되었다.
- ④ 신간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 ⑤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 ④

*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11)

6·10 만세 운동(1926) 이후 학생 운동은 일본인 교원 배척, 한국 역사 및 한국어 교육 허용, 학생회의 자치 허용 등을 내걸고 전개되었다. 특히 각급 학교에 조직된 독서회는 학생들의 항일 의식을 고양시키고 동맹 휴학을 주도하였다. 이 중 전남 광주 지역 항일 학생비밀결사인 성진회(1926년 11월 결성)가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1929년 11월,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에서 검거된 조선인 학생에 대한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저항하는 학생 시위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일제의 보도 통제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위는 인근의 나주와 목포로 확산되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시위에 가담하였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에 알려지자 신간회(1927~1931) 등 민족 운동 단체에서는 진상 조사에 나섰고, 서울에서는 학생과 민족의 총결기를 요구하는 격문이 나돌았다. 이에 일제는 조기 방학을 실시하여 고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하였다. 이듬해 1월에 서울에서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이 결기를 시작하였다.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를 내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일제의 탄압에 학생들은 가두 시위나 동맹 휴학으로 맞섰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각급 학교 학생들이 참가함으로써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가 독립운동의 주역임을 확인하였다.

①, ②, ⑤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3·1 운동(1919)은 전 민족이 참여한 대규모의 독립 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일제의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뀌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중국의 5.4 운동(1919), 인도의 반영 운동 등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③ 1920년대에 진주의 형평사(1923)를 시작으로 백정들이 신분차별 타파를 위한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4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정월 대보름 체험 프로그램 안내

우리 문화원에서는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에 행해왔던 세시 풍속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전통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일자: 2016년 ○○월 ○○일

2. 장소: △△ 문화원 야외 체험장

3. 체험 프로그램

- 오곡밥 먹기
- 보름달을 보고 소원 빌기
- 액운을 물리치고 건강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 (가)

- ① 팔죽 쑤어 먹고 문에 뿌리기
- ② 어른에게 세배하고 떡국 먹기
- ③ 햇곡식을 빵아 송편 빚어 먹기
- ④ 진달래 꽃으로 화전 부쳐 먹기
- ⑤ 부스럼 예방을 위해 부럼 깨물기

정답: ⑤

*** 정월 대보름의 세시풍속**

정월 대보름(음력 1.15)은 일명 상원(上元)으로 불리운다. 한해의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의미로 쌀, 조, 수수, 팥, 콩 등을 섞어 지은 오곡밥을 먹고, 건강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땅콩이나 잣, 호두, 밤 등 부럼을 자기 나이 수대로 깨물며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일년 내내 기쁜 소식만 전해달라며 부녀자 애들 할 것 없이 귀밝이술(耳明酒)을 마신다.

놀이로는 농사가 잘되고 마을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모여 '놋다리 밟기(안동)', '지신(地神)밟기', '차전놀이', 고싸움놀이(광주) 등을 벌이고, 한 해의 나쁜 액을 멀리 보내는 의미로 연줄을 끊어 하늘에 연을 날려 보낸다.

저녁에 대보름달이 솟아오르면 원추형의 나뭇더미를 불에 태우는 달집태우기, 햇불을 땅에 꽂고 합장하여 저마다 소원을 빌고 논이나 밭의 두렁에 불을 질러 잡귀와 해충을 쫓는 '쥐불놀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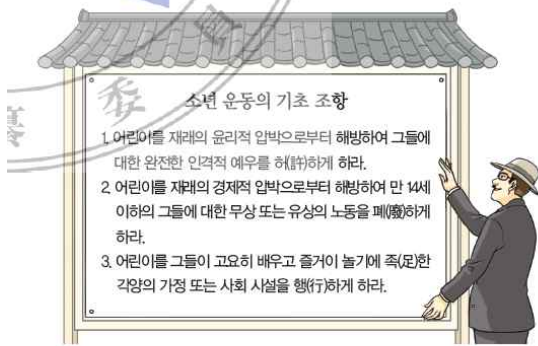
① 동지(冬至)는 대설(大雪) 15일 후, 소한(小寒) 전까지의 절기로, 양력 12월 22일경으로 일 년 중 가장 밤이 긴 날로서, 민가에서는 양색(陽色)인 붉은 색이 음귀(陰鬼)를 내쫓는다 하여 붉은 팔죽을 쑤어 먹었다.

② 설날(음력 1월 1일)은 원일(元日), 원단(元旦)이라 하여 한해의 첫날로 천지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원시 종교적 사상에서 깨끗한 흰 떡으로 끓인 떡국을 먹고, 조상들에게 차례를 드린 후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었다.

③ 음력 8월 15일인 추석(秋夕)에는, 일 년 동안 기른 곡식을 거둬들인 햇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상을 차려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한다.

④ 음력 3월 3일인 삼짇날에는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와 추녀 밑에 집을 짓는다는 때로, 이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이 때에는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쌀가루에 반죽하여 참기름을 발라 지지는 화전(花煎)을 먹거나,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다음 가늘게 썰어 꿀을 타고 잣을 넣어서 먹는 화면(花麵)을 즐겨 먹는다.

42. 다음 자료의 사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보 기>

- ㄱ. 김기전, 방정환 등이 주도하였다.
- ㄴ. 서당 규칙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 ㄷ. 천도교 세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 ㄹ.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1920년대 소년 운동

일찍이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라.”라고 강조한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의 뜻을 이어받아 천도교에서는 소년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김기전(‘개벽’ 주필), 방정환(손병희 사위, 아동작가), 이정호(아동작가)이 활약한 천도교 소년회에서는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소년 운동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조직체인 조선 소년 연합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가 되면 일제는 소년 운동을 애국 운동으로 간주하여 탄압했고, 중·일 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금지시켰다.

㉠ 개량 서당을 통해 민족교육이 확산되자 일제는 서당규칙(1918)을 통하여 서당 설립을 허가제로 하여 탄압하였다.

㉡ 1907년 국민의 모금으로 나라빛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국채보상기성회와 대한매일신보 등의 민족 언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 및 해외로까지 확산되었으나,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43. (가)~(마) 지역에서 있었던 의거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 -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 ② (나) -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렸다.
- ③ (다) -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④ (라) -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 일행에게 폭탄을 던졌다.
- ⑤ (마) - 윤봉길이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을 처단하였다.

정답: ①

*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의 항일 의거

- 안중근(1879~1910)은 한말의 독립운동가로 삼흥학교를 세우는 등 인재양성에 힘썼으며, 연해주에서 대한의군 참모총장으로써 국내진공 작전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이듬해 초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 노인단 소속의 강우규(1855~1920)는 60이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울 남대문에서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여 총독 저격에는 실패하였으나 많은 일본인들을 사상하였다(37명).

- 김구가 조직한 한민애국단의 단원인 이봉창은 1932년 1월 에 일본 도쿄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일본 국왕을 처단하기 위해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편, 4월에는 같은 한민애국단원인 윤봉길은 상하이의 홍콩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시라카와 대장 등 많은 일본군을 응징하였다.

- 김원봉(1898~1958)이 조직한 의열단의 활약상은 다음과 같다.

1920년 부산 경찰서(박재혁)를 시작으로 밀양 경찰서(1920, 최수봉), 종로 경찰서(1923, 김상옥), 조선 총독부(1921, 김익상), 도쿄의 일본 왕궁(1924, 김지섭), 동양 척식 주식회사(나석주, 1926) 등에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감행하였다.

44.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제1조 소학교는 국민 도덕의 함양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보통의 지능을 갖게 함으로써 충량한 황국 신민을 육성 하는데 있다.

.....

제13조 심상 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수공, 창가, 체조이다. 조선어는 수의(隨意) 과목으로 한다.

- ①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 ② 공출을 강요하는 면사무소 서기
- ③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 ④ 창씨개명을 선동하는 친일 문학인
- ⑤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인 교사

정답: ①

* 3차 조선교육령 시기(1938~1943)의 모습

일제는 1938년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 개칭하고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하며 교과목을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직업과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조선교육령으로 개정하였다.

① 한일병합(1910.8) 직후 일제는 전국 곳곳에 배치된 헌병과 경찰을 통해 한국인의 모든 일상생활에 관여했으며, 즉결 처분권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태형 등의 형벌을 가할 수도 있었다. 특히 조선 태형령(1912)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형벌로 1920년 폐지되었다.

②, ③, ④, ⑤ 일제는 중일전쟁(1937)의 배경 속에서 1938년 병참기지화 정책을 천명하고,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1941)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개명-조선민사령 개정, 1939),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인적수탈로는 강제 징용(1939년 제정, 1944년 전면 실시)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육군 특별) 지원병(1938),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여자 정신대 근무령(1944)을 통해서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적 수탈로는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공출을 실시하였으며(1940),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손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1942).

45. (가)~(라) 법령을 제정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가)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라) 제7조 ①소작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년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7년 이상이어야 한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다) - (가) - (라)
 ⑤ (다) - (라) - (나) - (가)

정답: ②

* 일제의 경제에 관한 각종 법령

(가) 회사령(1910): 일제는 우리 민족의 자유스러운 기업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1910년 회사령(~1920)을 제정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나) 조선 토지조사령(1912): 일제는 식민지 재정을 위한 지세 확보를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1912년 토지조사령을 제정하여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본격화하였다. 그런데 총독부는 당사자가 소유권을 신고하여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한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았다.

(다) 국가 총동원법 (1938):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한반도 내에서 노동력과 물자 등을 수탈하여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법. 이를 통해 일적·물적 수탈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라) 조선 농지령(1934): 일제는 1930년대 들어 소작농민들의 불만을 무마기 위한 관제 농민운동인 농촌진흥운동(1932~1940)을 전개하고, 조선소작조정령(1932), 조선농지령(1934) 등을 통해 지주의 소작권 제한을 정부가 관리·규제하며 소작농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무마하고 지주들을 관치로 통제하려 하였다.

이 중 조선 농지령은 명칭만 거창할 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만 국한시킨 그 적용범위로 볼 때는 이전의 조선 소작령과 다를 바 없다.

부·군·도에 소작위원회를 두고 마름의 악폐를 제거하기 위해 지주가 마름과 같은 소작지 관리인을 둘 경우 지방관서에서 그 인물의 적부를 소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판단하게 한 것, 소작권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작물의 성격에 따라 3년 내지 7년 이상의 기한을 규정한 것 등은 소작쟁의의 주요 원인을 근절시키려 했던 목적에 합당한 조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령의 실제 집행에서는 여전히 지주를 옹호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으므로, 이 법령의 당초 제정 목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소작쟁의는 그 뒤로도 수없이 발생하였다.

46.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광복 이후 현대사의 흐름

8·15 광복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개최 (가) 5·10 총선거 실시

① 좌·우 합작 위원회 활동 ②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③ 김구의 남북 협상 참석

④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활동 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방한

정답: ④

* 정부 수립 전후의 연대기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1945.12)의 결정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1차: 1946.3~5, 2차: 1947.5~10),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 선정 문제 등으로 결렬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1946.6: 정읍 발언 -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주장) 등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여운형, 김규식 등의 중도 세력은 미군정청의 지원 아래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좌우 합작위원회(1946.7)를 구성하고 좌우 합작 운동(1946.7~1947.9)을 추진하여, 좌우합작 7원칙(1947.9)을 마련하고 남조선 과도입법의원(1946.12)이 설치되기도 하였으나 여운형의 암살과 미군의 대외정책

변화(트루먼 독트린: 대공산권 강경노선)로 결국 실패하였다.

2차례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반도 문제는 미국에 의해 유엔에 이관되었고(1947.10),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며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남한에 파견하고(1948.1), 위원단이 활동이 가능한 지역(남한)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였다(1948.2).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 4.).

1948년 제주도에서 일부 좌익들이 폭동(4.3 항쟁) 속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비밀 선거인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1948. 8.15).

제헌국회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1948.9)을 제정하여 국회 산하 반민특위(1949. 1~8) 활동이 있었으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시효가 단축되어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농지개혁법을 제정(1949.6)하여 유상매입 무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1950.3~ 1957)이 이루어져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었다.

47. (가)~(마)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변천 과정

구분	주요 특징
(가) 제헌 헌법(1948)	대통령 간선제
(나) 1차 개헌(1952)	대통령 직선제
(다) 3차 개헌(1960)	의원 내각제
(라) 6차 개헌(1969)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마) 9차 개헌(1987)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 ① (가) -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였다.
- ② (나) -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였다.
- ③ (다) -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운영하였다.
- ④ (라) -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 ⑤ (마) -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정답: ③

*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 과정

대한민국 헌법 제정(1948년, 임기 4년의 대통령 국회 간선제 선출) 이후 정치적 격변과 맞물려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장기독재를 위하여 1952년 발췌개헌(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제한 폐지)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60년 4.19 혁명 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참의원, 민의원)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1960: 3차 개헌).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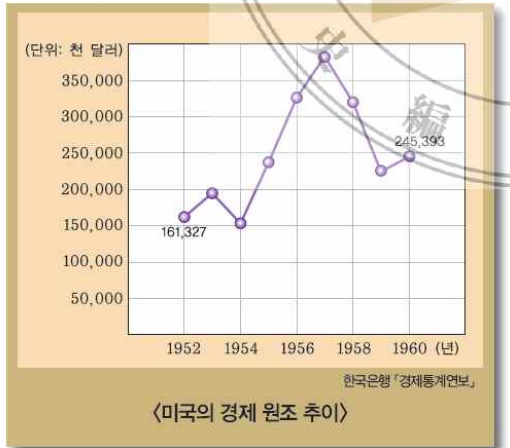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군정 때인 1962년, 다시 대통령 직선제 헌법으로 되돌아가,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였다.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3선 개헌을 강행하였고(1969), 1972년에 유신 헌법(7차 개헌, 임기 6년과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선출의 간선제와 마강한 권한 부여)으로 개정하여 장기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유신체제가 붕괴하며 대통령 직선제의 민주화가 오는 듯했으나,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선거(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로 선출하는 헌법을 개정하였고(1980: 8차 개헌, 5공 헌법),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권의 철권통치에도 불구하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1987: 9차 개헌, 현행 헌법).

48.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를 맞았다.
- ②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 ③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 ④ 삼백 산업 중심의 소비재 산업이 발달하였다.
- ⑤ 농촌 근대화를 목표로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

정답: ④

* 1950년대의 경제 상황

1950년대: 6.25 전쟁 중과 전후복구 기간에는 미국이 많은 경제원조를 제공하였다. 원조는 주로 식료품·농업용품·피복·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제당·제분 공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삼백 산업). 물자 부족이 해소되고, 소비재 공업도 성장하였으나 밀이나 면화 같은 농산물이 값싸게 들어와 당시 농촌 경제는 타격을 입었다.

1960년대: 4·19 혁명 이후 등장한 장면 정부는 차관 도입을 기반으로 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실행되지 못하였고, 1962년부터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주도 하에 새로 수립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 주도,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육성·지원하였다.

이 기간에는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여 울산 공업단지와 마산 수출자유 지역이 조성되고 포항 종합제철(1968)과 소양강댐(1967)과 경부 고속국도(1968~1970)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 **1970년대:** 1970년대에는 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어 중화학 공업, 전자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공업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 2차례(1973~74, 1978~80)의 석유파동으로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수출 증대(1977년 수출 100억불 달성)와 건설업의 중동 진출로 오일 달러를 획득하여 극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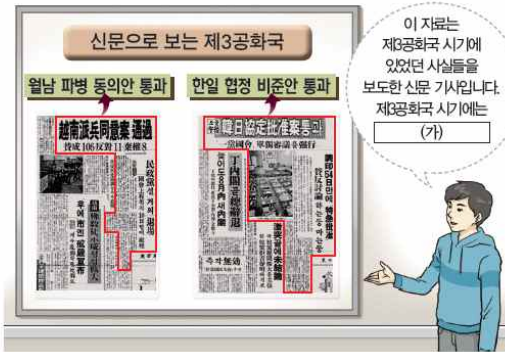
1980년대: 1970년대 말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우리 경제는 전두환 정부가 중복 투자와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금융 시장 일부를 개방하면서 다시 회복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3저(저금리, 저물가, 저환율)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첨단 기술 집약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 김영삼 정권 때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세계무역기구(1995)가 출범되며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체제가 확장되자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1996)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임기 말에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의존하게 되었다(1997)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IMF를 조기 극복하였고, 노무현 정권 이후로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2004), 한미 자유무역협정(2007년 일부 분야 한정 체결, 재협상 후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에 발효)이 체결되며 세계무역강국으로 부상하였다.

49.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 ②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③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가 파견되었습니다.
- ④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 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정답: ③

* 제3공화국 시기(1963~1972)의 역사적 사실

5.16 군사정변(1961)을 통하여 집권한 박정희의 군부세력은 비상계엄 하에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여, 반공강화와 민생안정 등을 표방한 혁명공약을 발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민정복귀의 약속을 외면한 채 헌법을 개정하여 정권을 다시 장악하였다(1963,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1964년 6.3 사태) 한·일 협정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65). 또,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하였다(1965~1973).

한편 한·일 협정 체결의 대가로 들어온 외화와 베트남 파병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외화 부족에 시달리던 한국 정부는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수입은 1960~7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종자돈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1972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며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장기적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제4공화국).

① 전두환 정권의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고수)에 맞서 1987년 6월 시민항쟁의 역풍이 불자 노태우의 6.29선언을 수용하며 결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현행 헌법)을 하게 되며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다.

② 휴전을 반대하던 이승만 정부는 휴전협정 체결(1953.7)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도 상호협조하고 대항한다는 내용의 굳건한 방위조약으로,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

④ 1990년대 초 노태우 정권에 들어서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어,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1991.8).

⑤ 1990년대 김영삼 정권은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1996) 등 시장개방 정책을 실시하였다.



- ①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간 배경을 조사한다.
- ② 대한 제국이 반포한 칙령 제41호의 내용을 분석한다.
- ③ 일본이 러·일 전쟁 때 불법으로 편입한 영토를 찾아본다.
- ④ 지증왕이 이사부를 보내 복속한 지역과 부속 도서를 살펴본다.
- ⑤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하여 영국이 점령한 장소를 알아본다.

정답: ⑤

* 독도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서,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이어져 내려왔다.

삼국사기 기록의 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를 통하여 우산국(울릉도)을 정벌한 사실과, 고려사 지리지(동계 울진현조), 세종실록지리지(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조 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에 우산도(독도)를 울릉도 안쪽에 표기) 등의 문헌 등

을 통해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였으나, 조선 초기에 유민을 막기 위해 울릉도민들을 본토에 옮겨 살게 하여(공도 정책) 한때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였다. 그러나 우리 어민들은 고기잡이를 하는 거점으로 줄곧 활용해 왔다.

특히, 조선 숙종 때에는 동래에 살던 안용복이 이 곳을 왕래하는 일본 어부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인시킨 일도 있었다(1696).

그 후에도 일본 어민의 침범이 계속되자, 이에 정부는 일본 측에 항의하고 육지 주민을 울릉도에 이주시키고 관리를 파견하였다(1884).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고, 대한제국 정부 칙령(41호)으로 두 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石島)도 관할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1900.10.25).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대한제국에 통보치 않음) 자국의 영토(시마네 현)에 편입시켰으나(1905), 해방 후 되찾았고 1952년부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 영토임을 부르짖으며 끈질기게 분쟁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⑤ 갑신정변(1884.12) 이후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불안을 느낀 영국이 3년간(1885~1887) 불법 점령한 섬은 전라남도 남해안에 소재한 거문도이다.